

재혼가족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 경 례

대구대학교 상담학과 / 박사

박 재 연[†]

대구대학교 상담학과 / 교수

본 연구는 재혼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해체와 가족 재구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혼가족 성인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혼의 상처’, ‘녹록치 않은 한부모 생활과 부모 형제들의 도움’, ‘홀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과 주변의 사람들’,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자녀의 지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문제들’, ‘새로운 가족과 적응을 위한 노력’, ‘새로운 가정에서 느끼는 안정감’, ‘남겨진 과제들과 지키고 싶은 우리 가족’, ‘가족 재구성을 통해 변화해가는 나, 그리고 바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재혼가족들의 가족 재구성 시작 전 단계부터 시작 단계, 적응 단계, 안정기 단계, 미해결과제, 재혼 후의 변화된 모습까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탐색하여 봄으로써 재혼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재혼가족, 가족해체, 가족 재구성,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상담학과 박경례(2021)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교신저자 : 박재연,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상담학과·청소년정신건강연구소,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 053-850-6321, E-mail : jaeyeonpark@daegu.ac.kr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가 전체 가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 가구, 비혼 및 동거가족 등 매우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홍승아, 최인희, 최진희, 유은경, 2016).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혼인 건수는 21만 3천 5백 건이며, 이중 재혼은 3만 8천 건으로 나타났다. 혼인 종류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78.2%, 재혼은 11.8%이며, 재혼가정 중 사별 후 재혼은 6.26%, 이혼 후 재혼은 93.73%로 나타났다. 평균재혼연령은 남자가 50.0세, 여자는 45.7세로 전년 대비 남자 0.4세, 여자 0.6세 상승하여 남녀 모두 재혼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재혼 중 남자재혼+여자재혼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남자초혼+여자재혼, 남자재혼+여자초혼 순으로 부부 구성비가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1).

재혼가족은 가족 생활주기와 개인 생활주기와 불일치, 계부모-계자녀 및 비동거 친부모 존재, 복잡한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지지도 초혼과는 다르다. 재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로맨틱한 동기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고, 자녀 양육 부담의 분담과 사회적 압력, 심리적 외로움으로부터의 탈피 등의 현실적인 동기를 우선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현실적 동기로 인하여 과도한 기대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Ganong & Coleman, 1994).

재혼가족의 심리정서적, 경제적,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관계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재혼가족은 충성심 갈등을 경험하는데, 충성심 갈등이란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질 때 겪는 심리적 갈등이며, 분노, 배반감, 죄책감, 질투 등의 복잡한 정서를 수반한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친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에서 감정의 균열을 느끼고, 계자녀와 동거하는 계부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계자녀 사이에 충성심 갈등을 경험하며, 자녀들은 계부모와 비동거 친부모와의 사이에 충성심 갈등을 느낀다(Ihinger-Tallman & Pasley, 1987). 또한 재혼가족은 가족관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초혼가족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 재혼가족은 별 노력을 안 해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계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비동거 부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등은 재혼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정현숙, 2003). 그러나 재혼가족은 재혼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혼부모에게 상실된 부모의 역할을 할 기회가 제공되고, 이로 인하여 가족 내에 심리적 안정감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재혼으로 주어진 새로운 역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제공 받는 등 가정이 정서적인 균형과 함께 기능적인 가족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권혁출, 2014).

둘째, 재혼가정의 경제권은 재혼 부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척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 소득이 높을수록 재혼모와 계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높으며(Santrock & Sitterle, 1987), 재혼모의 입장에서 경제권의 유무가 아내나 모로서 자신의 위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혼모의 역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연옥, 2002). 이혼 후 많은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재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재혼으로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하고자 했던 재혼 여성들은 재혼을 계기로 전업주부가 되어 ‘재혼 같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규범적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정, 2010).

셋째,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공통적인 문제는 계부모와 계자녀간의 관계적 어려움이다(권예원, 2016; 김혜선, 2015; 김효순, 엄명용, 2007; 변복수, 박승민, 2015). 계부모-계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재혼 당시의 자녀 연령, 재혼 지속 기간, 자녀 수, 성별,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와의 접촉 정도 등으로 알려져 있다(김형민, 2014). 재혼가족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또는 사별, 별거와 재혼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족구조 속에 편입되었으므로 계모나, 계부와의 갈등, 학대, 편애, 가정불화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혼가족 자녀들은 초혼 핵가족 자녀들보다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적응 문제를 보인다(Gosselin, 2010; Rogers & Rose, 2002). 한편 계부모의 온정적인 양육 태도는 통제적인 양육 태도보다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수준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은 쉽게 비행에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son, McLanahan, & Curtin, 1992).

넷째, 재혼가족은 사회관계적 변화를 갖게 된다. 재혼은 재혼당사자와 자녀들만의 가족 확장이 아니라 전혼의 배우자 친족들, 재혼 후 배우자 친족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다. 전혼해체 후 주로 모가 부양하는 서구사회에서 이혼가족은 외가 쪽 조부모체계와 연합관계를 갖게 되면서 경계 모호성을 가중시킨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양육권이 부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가사의 일로 친가의 도움을 받았던 이혼가족은 새 배우자가 들어와도 친가의 개입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친족의 간섭과 관여가 지나치면 재혼의 해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권혁출, 2014; 김연옥, 2007; 양진희, 2012). 한편 재혼가족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재혼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고(최영아, 2002),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은 재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영, 서영석, 2012; 김복희, 2007).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혼가족의 삶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의 역할기능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김연옥(2002)은 재혼모의 역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혼인유형, 결혼 만족도, 계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이 재혼보다는 초혼일 때,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계자녀와의 관계가 문제일수록, 시댁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인식할수록 재혼모의 역할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연실(2004)은 재혼모의 역할긴장은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때 배우자의 지지는 재혼모의 결혼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 김효순, 엄명용(2007)의 연구에서 재혼가족은 계부모와 계자녀간 역할갈등이나 역할모호성, 역할 구속 등으로 역할긴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역할긴장 요인은 재혼가족의 행복과 가족 응집, 결혼 행복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순, 하춘광(2010)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 자녀를 가진 재혼가족 부모는 재혼 초기에 불안정한 가족 형성단계를 거치게 되고, 재혼 생활 과정에서 부정적인 계부모 역할 경험을 많이 하였다. 김다애, 조은숙(2019)의 연구에서 재혼모는 계부보다 역할긴장과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매개 요인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둘째,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김연옥(2002)은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결혼 전의 생활 경험 유무, 역할긴장, 결혼 만족도, 소득 등이 있으며 이 중 결혼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박태영, 김태한(2010)은 재혼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재혼가족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부부 갈등, 계모-계자녀 갈등으로 전이됨을 밝히고 있다. 최영아(2002)는 재혼자의 결혼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요인들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부부의 종교 일치 여부임을 확인하였다. 장현정(2010)은 여성의 삶 속에서 여러 번의 결혼 경험은 주체의 행위성 및 지향, 여성들 각자가 처해있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에 따라 각각의 결혼 관계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 속에 서로 다른 결혼의 의미가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변복수(2014)는 국내의 2000년~2013년까지 재혼 관련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대상과 연구 주제에 따라 재혼가족, 노인 재혼, 재혼관 및 재혼 인식, 프로그램 개발, 문헌 연구 등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연구 현황은 재혼가족 37%, 노인 재혼 35%, 문헌

연구 12%, 프로그램 개발 8%, 재혼관 및 인식 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 경향분석 결과 양적연구 49%, 질적연구 29%, 양적 및 질적 병행연구 2%, 문헌 연구 12%, 프로그램 8%로 나타나 양적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가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우리 학계의 양적연구 선호 풍토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며, 심층 면접 방식으로 접근하는 질적연구의 경우, 재혼가족의 특성상 노출하기를 꺼림으로 인해,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연구참여자들이 대부분 재혼 여성만을 참여자로 했거나 60세 이상의 재혼 노인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태영, 김태한(2010)의 연구는 재혼가족에 관한 단일사례연구로서 재혼가족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해체 후 한부모가정의 생활과 재혼을 선택한 후의 다양한 변화과정의 흐름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초혼 핵가족이라는 전형적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족들이 경험한 다양한 측면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재혼가족들의 삶과 욕구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심리적 자원과 경제적 및 제도적 필요성을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혼가족의 심층적인 내면의 갈등과 욕구, 소망 등을 탐색하기에는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재혼 여성과 재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해체와 재구성 과정에서 재혼가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봄으로써 재혼가족

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재혼으로 가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셋째, 가족 재구성 후의 삶은 어떠한가?

방 법

가족해체와 재구성 과정은 순간적인 결정이나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경험한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연구대상의 경험이나 현상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기술하면서 이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가족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통해 체험된 재혼가족의 주관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현상들과 변화의 흐름,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탐색하기에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는 주로 연구참여 자로부터 주어지는 언어라는 텍스트에 초점을 둔 기술과 분석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과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현주, 2005). 본 연구는 Giorgi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재혼가족들의 전혼해체와 가족 재구성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과 변화들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명

확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도출된 구조 속에서의 구성요소 간 관계를 설정하고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 가족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재혼가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선정

재혼가족은 자신들의 상황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표집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선정은 먼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자의 지인을 면담하고 그 후 지인의 소개를 받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후 또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가족해체와 가족 재구성을 경험하였고, 미성년인 친자녀 혹은 계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재혼가족 남녀 12명이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반구조화 질문지는 문헌연구 등을 통해 구성한 후 전문가 감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은 재혼가족의 과거 경험의 회상을 통해 시작함으로써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에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질문내용을 찾고자 하였고, 완성된 질문지는 4인의 전문가 감수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자료 수집

질적연구에 필요한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적절성과 충분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적절성은 연구 주제에 대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재혼 기간	재혼 유형	재혼 사유	친자녀 동거유무	배우자자녀 동거유무	우리 자녀
1	여	49	고졸	주부	기독교	10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안함	없음
2	남	46	고졸	회사원	기독교	10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안함	없음
3	여	42	대졸	회사원	무교	1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함	동거안함	있음
4	남	45	대졸	회사원	무교	1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함	있음
5	여	41	대졸	자영업	불교	6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함	없음
6	여	50	대졸	간호사	기독교	23년	재혼남+ 재혼녀	사별	동거함	동거함	있음
7	남	47	고졸	회사원	무교	8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함	동거안함	없음
8	남	56	고졸	회사원	무교	4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함	동거안함	없음
9	여	58	고졸	주부	무교	4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함	없음
10	여	54	고졸	자영업	기독교	10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안함	없음
11	남	56	고졸	회사원	무교	10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안함	없음
12	여	58	고졸	요양 보호사	기독교	20년	재혼남+ 재혼녀	이혼	동거안함	동거함	없음

고, 충분성은 연구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도 풍부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수집하여야 한다(이윤경, 2017). 본 연구를 위해 가족해체와 재구성 경험을 한 성인 남녀를 선택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연구 목적 설명과 함께 연구자를 신뢰하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을 방문하여 1차 면담을 진행한 후 2차, 3차 면담은 전화로 진행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1~2시간 소요되었다. 면담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였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가정, 카페, 교회, 연구자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였다. 본격

표 2 .반구조화 질문지

-
1.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요?
 - ① 가족이 해체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② 가족해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 ③ 가족해체 후 심리적, 경제적, 자녀 양육, 사회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요?
 2. 재혼으로 가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요?
 - ① 가족을 재구성하게 된 과정은 어떠한가요? (가족을 재구성하게 된 계기와 이유 포함)
 - ② 가족 재구성 후 심리적, 경제적, 자녀와의 관계(동거 및 비동거 친자녀 및 계자녀 포함), 사회 관계적인 부분(원가족 포함)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나요?
 - ③ 재혼 생활 적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3. 가족 재구성 후 삶의 질은 어떠한가요?
 - 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 ②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

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반구조화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주어, 면담하기 전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경험을 회상하는 시간을 주었다. 1차 면담에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2차 면담에서 보완하였고, 3차 면담에서는 2차에서 파악하지 못한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자료 수집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내용과 관련된 사건이나 의미 있는 부분에서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정과 어투, 행동 등은 메모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면담과 관찰 메모 등으로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로 연구자가 갖고 있는

재혼가족에 대한 선이해, 편견, 과거 경험적 지식을 괄호치기하여 연구의 본질을 파악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Giorgi(1997)는 수집된 자료를 심리학적 관점에 따라 ‘의미 단위’로 구분하고 그것에 내포된 심리·사회적 식견을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기술문으로 통합하도록 다음의 4단계 기술 방법을 제안하였다(신경림, 2003). 첫째,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로서 참여자가 진술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하여 녹취된 자료들을 반복하여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자의 학문적 주제에 적합한 현상을 의미 단위로 구분한다. 이는 연구자가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의미 단위를 추출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연구의도가 반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학문적으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 단위를 나누기 시작한다. 의미 단위 수립과정은 이론에 입각하여 증명하는 맥락이 아니라 순전히 실제적(Practical)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순수한 발견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자체가 갖는 인위성의 문제는 추후 다른 전문가를 통하여 검증받음으로써 해결한다. 셋째,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시킨다. 이렇게 학문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범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중심 의미를 기술할 때 합의된 학문적인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Giorgi의 제안대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상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넷째,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적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한다.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조’라고 불리는 것으로 본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김현경, 2007). 관련성 있는 진술들은 합치고 재배치하며, 중복되는 진술들은 버리고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서 포함된 사건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기술문으로 통합한다(권예원, 2016). Giorgi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의 인식 단계로 면담한 녹음 내용을 전사한 후 축어록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가족해체와 재구성 경험 기술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표시하여 의미 단위로 따로 구분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로 앞 단계에서 구분한 의미 단위를 연구 주제에 부합되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공통되는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고 여러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경험적 의미, 즉 본질적 의미를 재배치하고 통합하여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가족 재구성을 통해 경험한 심리적인 현상과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현상의 요소를 통합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

면담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심층적이고 내밀한 경험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대상자용 동의서 및 설명문을 보여준 후 같이 읽으며 사본을 1부 주었다. 동의서 및 설명문에는 연구 목적과 개요, 실시 방법, 연구 부작용 및 예상치 못한 위험성,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연구 참여에 대한 이득이 적혀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¹⁾을 받은 연구임을 밝힌다.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 검증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자질 등이 연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유의해야 하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이해를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선이해, 편견 등을 검토하고 연구자의 태도가 현상을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 감수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은 10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가족 상담 관련 전공 교

1)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1040621-202004-HR-003)

수 3인과 박사학위 취득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임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1인의 검증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견해 중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듯한 가족해체라는 단어보다는 불가피한 이혼으로 나타난 가족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족해체 혹은 가정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재혼가족이 가족 재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임을 전문가에게 설명 후 원래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영역과 하위영역간의 모순된 연결성을 확인하여 재배열을 하였고, 재혼가족의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험을 포함하면서 호칭과 역할갈등에 대한 의미전달이 미흡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성별에 따른 호칭과 역할부분에 대한 단어를 재정리하였다.

결 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Giorgi의 분석 제시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재혼가족의 성인들이 가족해체, 한부모 가족, 새로운 가족 형성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은 ‘가족의 해체’,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 ‘가족 재구성 후의 다양한 삶의 변화들’의 3개 영역과 9개의 하위영역, 49개의 범주로 이루어졌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혼의 상처

참여자들은 전혼 당시 결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결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배우자의 성격적 특성과 서로 다른 가치관의 차이는 결혼생활에서 심한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배우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했고, 포커 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짐으로써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하였다.

“21살 때 임신을 해서 결혼했어요. 그 때는 애를 지워야한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집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식을 올렸어요.”(참여자 5)

“처자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자리 있는 타지로 보냈다고 원망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어요. 자기도 적응하려니 힘들겠지 싶어서...”(참여자 1)

“술집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외도하고. 생활비를 안 줬어요. 내가 학교 선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니 같은 여자 만나서 돈도 못 벌어온다고. 애하고 있는데 술 먹고 배란다 유리도 깨고. 정말 이유 없이 당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그래서 소송 한번하고 취하해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안 변하니까 또 소송했어요.”(참여자 3)

표 3. 재혼가족의 경험 구성요소 도출 내용

영역	하위영역	49개의 범주
가족의 해체	전혼의 상처	준비되지 못한 결혼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전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과 무책임
		전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고부 갈등
한부모 가족으로서의 삶	녹록치 않은 한부모 생활과 부모 형제들의 도움	괴로움과 자괴감
		경제적인 고통
		신체적 질병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자녀의 존재로 위로 받음
	홀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과 주변의 사람들	부모, 형제들의 도움으로 버텨냄
		숨어서 살아감(대인기피증)
		홀로 남겨진 외로움
		이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
		빈약해진 경제력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자녀의 지지	자녀와의 이별, 그리움과 죄책감	
	주변과의 관계, 공감대 형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 남겨진다는 불안감	
	가족들의 염려와 충고	
	재혼에 대한 자녀의 지지	
가족 재구성후의 다양한 삶의 변화들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문제들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전 배우자의 인간질과 무책임
		새 배우자와의 갈등
		친자녀가 겪는 고통으로 마음이 무거움
		계자녀와의 갈등, 양육의 부담감
		계부모 역할갈등
시댁 및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표 3. 재혼가족의 경험 구성요소 도출 내용 (계속)

영역	하위영역	49개의 범주
가족 재구성후의 다양한 삶의 변화들	새로운 가족과 적응을 위한 노력	새 배우자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맞추어 나감
		상처받은 친자녀를 돌보기 시작함
		계자녀와 친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함
		우리 자녀에게는 건강한 가족을 주고 싶음
		시댁 및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역할을 모색함
		새가족을 품도록 한 신앙의 힘
	새로운 가정에서 느끼는 안정감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
		전 배우자와는 다른 배려를 받으며 편안함을 느낌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
		친자녀가 이해해주고 엄마로서 인정받아 뿌듯함
		계자녀와의 관계가 편해짐
		우리 자녀가 가족을 이어줌
남겨진 과제들과 지키고 싶은 우리 가족	친척과 주변에서 지지해줌	
	주변에 재구성 가족임을 당당하게 공개함	
	전 배우자와의 불편함	
	새 배우자와의 관계	
	두고 온 아이들	
	여전히 존재하는 계부모, 계자녀 사이의 긴장	
가족 재구성을 통해 변화해가는 나, 그리고 바람	시댁과의 역할긴장	
	지키고 싶은 가족	
		변화되어가는 나

녹록치 않은 한부모 생활과 부모 형제들의 도움

참여자들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괴로움과 자괴감, 경제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였다. 가족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자녀에게 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였지만 함께 있는 자녀로 인해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힘도 얻었다. 또한 부모 형제

들의 도움으로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었다.

“친정엄마와 셋이 살면서, 엄마는 아이 키우고 나는 돈 벌러 다니고 했어요. 양육비 전혀 못 받았고 위자료도 못 받았어요. 한부모가정 지원받고 내가 식당일, 남의 집 파출부 같은 것 하며 살았지요.

그러다가 시청에 청소하는 용역일 했어요. 그거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식당에 알바하러 다니고..”(참여자 9)

“저 혼자 양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오로지 아이에게만 매달려 있었어요. 친구들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애를 양육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친구 관계는 다 끊어졌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오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픈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힘이 되고...”(참여자 3)

“처음 한 달은 직장동료 형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촌으로 들어와서 어머니가 다 키웠어요. 그때 작은 형님이 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처음에는 애들이 작은형이 아빠인 줄 알았대요. 작은형을 아빠라고 불렀어요.”(참여자 7)

홀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과 주변의 사람들

이혼으로 인해 자녀와 헤어지게 된 참여자들은 대인기피증,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혼한 사람이라는 편견 속에서 괴로워하였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한동안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았지요. 친정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안 했어요. 내가 죄지은 것 같아 미안하고. 2년 있다가 애들과 연락했어요.”(참여자 1)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나가고 혼자서 어떻게 해도 이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도 있었고. 혼자 산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참여자 5)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지지고 볶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혼자 뚝 떨어져 자식도 버리고 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 도박으로 큰애 중2 때 이혼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애들 때문에 서류상은 이혼 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 뒤에도 도저히 안 변하니깐.. 아 이 남자하고는 더 이상 살수가 없겠구나.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하고는 나왔어요. 애들한테 엄마는 너희 아빠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애들은 아직 어린 시기여서.. 충격을 받은 것 같으니깐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참여자 10)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자녀의 지지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고 가족들의 염려와 충고도 있었다. 그러나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두려웠지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또 실패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친구들은 다 둘이잖아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서 나 혼자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자보

다는 돌이 낫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딸이 시집가고 없으니까. 내 할 일도 없어지니까. 나 혼자 먹고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돌이면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참여자 9)

“아이들이 많이 외로웠나 보더라구요. 애기 때 헤어져서 애들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고... 저도 애를 못 키우고 그렇게 마음 앓이를 하고 있었고. 애네들도 엄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애들과 제가 서로 원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좋았었으니까. 다 받아주고..”(참여자 5)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문제들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면서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다. 확장된 가족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 배우자의 이간질과 무책임, 새 배우자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또한 친자녀가 겪는 고통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계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계부모 역할갈등, 시댁과 주변의 부정적인 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처음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3년이 지나가니까 이리다가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희생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애들을 혼내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애 아빠한테도 하고. 그런데 애들한테 뭐라 하면 친엄마가 아니니까. 새엄마라서 말할 것도 못하고 담아두니까 나한테는 병이 되고..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애들을 보살피고 엄마처럼 챙겨줬대요. 제가 들어와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저에 대해서 불편하면 시누이에게 바로 말하고, 시누이는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섭섭하다는 말을 하고, 화가 난 표정을 보이면 속상했어요”(참여자 5)

“남편이 6개월 정도 일하고 6개월 놀고. 퇴직금은 한 번 받아봤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했어요. 베이비시터 하고, 우유배달, 편의점 알바 하고. 아버님이 농사짓는데 아이들 현장 학습시키고 데리고 가서 감 따 배달하면 조금씩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니까 차라리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으로 도움받고 사는 게 나을까 하는 혼란스러움이 많았어요. 내 아이에게 신체 폭력 한두 번 했고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아이들끼리 차별을 은근히 했어요. 애는 새아빠와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했어요. 제가 눈물 흘리면 “엄마 그것 싫어” 하고 귀를 막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귀신이 보인다고 하기도 했고. 자해도 하고 그랬어요.”(참여자 6)

“처음 1년 반 정도는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남편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여자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면서. 내가 얼마 살다가 갈 건지 자기들끼리 내기도 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싶어 했어요.”(참여자 9)

새로운 가족과 적응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점차 재혼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상처받은 친자녀를 돌보기 시작했고, 계자녀와는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자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시댁과 주변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모색하였다. 무엇보다 새가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신앙이 중요한 힘이 되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1, 2년 살고 헤어질 것 아니고 이 아이들을 공동 육아를 할 것 같으면 좀 거리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좀 말하기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할 말 있으면 해야 된다고. 그런 말 안 하면 부부 아니라고. 같이 낳은 자식이면 이렇게 했겠냐고 같이 안 낳았으니 오픈할 건 오픈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말 못하겠으면 꾸준히 말하지 말고 그냥 덮든지 하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남편도 이제는 편안하게 말해요.”(참여자 3)

“내 아들을 일찍 아빠에게 보내고 키우지 못한 미안함이 있으니까 남편 아들에게 엄마 사랑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을 거니까. 내 아이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내 아이는 어릴 때 헤어져서 못 키워준 미안함은 있는데 애착 관계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참여자 5)

“재네들도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

면 나도 잘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애들도 마음을 많이 열고 나도 잘해주려고 하고. 나는 그냥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요. 니네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그냥 아빠 여자 친구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했어요.”(참여자 10)

“나중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었어요. 집을. 내가 데리고 간 아이만 데리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죽을 만큼 해봤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말로 폭력, 저주의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라도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어야겠다 생각했어요.”(참여자 6)

새로운 가정에서 느끼는 안정감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정에 적응되면서 새배우자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고, 친자녀로부터 인정받고 계자녀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친척들과 주변에서도 지지해주었으며, 스스로 재혼가족임을 당당하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같이 해결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이에 딸이 있

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 애로 인해 어려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크게 싸워도 복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까. 만약에 애기가 없었으면 와이프하고 크게 싸우면 또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아이가 있는 것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는 그러면 안되니까..”(참여자 4)

“부탁하면 저번 남자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야. 잘 들어주고. 미리 알아서 잘해주고. 소소한 것들 잘 살피요. 내가 사업을 여러 번 하면서 사고 치면 남편이 매꿔 줬고, 혼자 살 때보다 경제적인 것에서 부담이 덜 가요. 애들도 엄마를 이해하고 찾아오고 해요. 큰아들이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장가는 가야하는데 상의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 니가 무슨 걱정을 하나. 아빠는 상의해봐야 말도 안 될꺼고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내가 대신 나가서 상견례도 하고 명목상 엄마 노릇한다고 돈도 좀 해주고. 그러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남편 애들도 3년 정도 되니 쭉스러워하면서 엄마라고 불려요. 저번 달 내 생일에는 남편 딸이 선물을 보냈어요. 문자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엄청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참여자 10)

“지금은 같이 일을 하러 가면 남편보고 마누라 금덩어리 얻었다고 동네 형님들이 많이 말을 해요. 마누라는 A급이라고. 나에게도 말하고 자기들끼리도 나보

고 진짜 야무지고 버릴 게 없다고 말할 해 줘요.”(참여자 9)

“나는 애가 다섯이다 하면 깜짝 놀래죠. 재혼했다고 해요. 속일 일도 아니고. 같은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다들. 와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참여자 2)

남겨진 과제들과 지키고 싶은 우리 가족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정이 안정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 배우자 및 새 배우자와의 관계, 두고 온 아이들, 아직도 불편한 계부모, 계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역할긴장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족을 지키고 싶은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아이 아빠는 처음에 몇 년은 아예 안 만나러 왔고. 관심도 안 보였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만나러 와요. 그동안 힘들게 다 키워 놓으니.. 지금 남편은 전처 자식들 보러 매주 주말마다 가다보니까 우리 아이 육아는 또 온전히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애기는 저 혼자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남편은 전처 자식들에게 가면 무조건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 집 아이들은 아빠가 재혼하면서 또다시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는 아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 무서워요.”(참여자 3)

“제 애도 사춘기가 되니까 왜 엄마는

나를 안 키웠어. 왜 다른 애들을 키워 하더라구요. 평생 가도 제 마음에 짐이 되고 상처가 되겠죠. 남편은 내가 그 아이를 안 만나고 자기 아이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꾸 내비쳐서.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처음 결혼할 때 신랑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내 애를 책임져줄 수 없으니깐 그것을 인정해주고 대신 자기애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는 너랑 나랑 둘이 살자. 내가 내 애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는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사실 좀 섭섭하죠.”(참여자 5)

“저는 애들한테는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최고 마음 아픈 것은 아들하고 딸내미. 그 애들이 날 거부했든, 애엄마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끝까지 애들은 내가 사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특히 아들은 나를 너무 닮아서 안쓰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혹시 치이고 살지 않을까 싶고..”(참여자 2)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애가 자기 친가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보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못하고 와요. 이 아이를 생각한다면 재혼을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는 남편을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내가 잘하고 있나, 그래도 지나고 나서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왔다고 말하고 싶어요.”(참여자 6)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우리의 영향을 안 받게 하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참여자 12)

가족 재구성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나, 그리고 바람

재혼가족들은 재혼 후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적응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재혼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법률적 지식과 상담, 상시 전화상담 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재혼에 대한 주변의 수용적인 태도를 원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나도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물질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지만 정서적인 관계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고 무리도 안 하게 되요.”(참여자 3)

“1~2년 동안은 애들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어요. 애쓰는 만큼 안 되니 힘들었고요. 이제는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서로 알게 되고 부담 없이 대해요. 저하고 남편은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사이가 좋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빨리 커서 독립해 나가고 신랑이랑 들어서 훌가분하게 살고 싶은 기대로 지내요.”(참여자 5)

“우리 딸 낳을 때 출산장려금을 안 주

더라고요. 갑자기 가족이 늘고 아이들을 실제로 다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데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저쪽 엄마는 애들에게 전혀 도움을 안 줘서 양육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남편은 알아보지도 않고 있어서 답답해요.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내 돈으로 계약금 걸고 친정에서 보태줘서 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애들이 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참여자 3)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거잖아요. 살다 보면 왜 내가 재혼했을까 싶을 때도 있는데 서로에 대한 성격의 차이나 성향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부 상담, 자녀 상담 같은 것. 여성의 전화처럼 언제든 전화해서 상담받는 재혼가족 전화상담 같은 것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이 좋아요. 얼굴을 보면 못하죠. 결혼은 한번 한 것이나 두 번 한 것이나 사는 것은 똑같아요.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온전한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재혼이라 하면 왠지 부끄럽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돼요.”(참여자 10)

논 의

본 연구는 가족해체 후 가족을 재구성한 성인 남녀들의 삶에 관한 연구로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재혼가족들의 삶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해체 사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 혼전 임신,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인 무능력과 무책임, 부부의 사랑을 저버린 외도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더 이상의 가정을 지속할 수 없게 하였고, 좁혀지지 않은 고부 갈등은 결국 가족을 해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Amato와 Previti(2003)의 배우자의 부정과 폭력 및 학대, 가정의 의무 소홀, 경제문제, 외부가족의 간섭,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음을 연구한 결과와 일치한다. 주혜주(2016)의 혼전 성관계, 임신은 결혼의 위험요인이며, 남편의 폭력, 외도, 가정생활에 무책임한 배우자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되어 결국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는 연구와도 관련된다. 김은정(2018)의 연구에서 여성이 이혼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 폭력 및 외도이며, 이명신, 김유순(2005)의 연구에서도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특정한 위기적 사건과 배우자의 문제행동 등 개인적인 문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서의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표출되거나, 부부 간의 갈등과 불일치,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족해체의 주된 사유는 성격 차이(43.0%), 경제적 문제(10.1%), 배우자 부정(7.0%), 가족 간 불화(7.0%), 정신적, 육체적 학대(3.6%), 건강 문제(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가족해체 사유 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9). 결혼 전 가족생활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의 결혼 만족도가 높으며, 부정적인 감정교환도 적고 가정 폭력율과 이혼율도 낮다(Gallagher, 2002)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노력과 가족 응집력

을 저해하는 가족 문제 개입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역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한부모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과 자괴감, 경제적인 고통과 신체적 질병,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감당해야 했고, 때론 부모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자녀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였다. 이는 성정현(1998)의 연구에서 이혼 여성들은 이혼의 원인과 이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인 문제, 특히 분노와 상실감을 경험하였고, 이혼으로 상실된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노감이 컸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이 남성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혼한 한부모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저임금 혹은 비정규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및 낮은 지위 등에 처하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들과도 연관되는 결과이다(김진원, 2019; 박현정, 2011; 최은영, 2020). 김지혜, 김희주(2018)는 한부모 여성들은 한쪽 부모 부재로 인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서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었고, 자녀의 존재가 자신을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 됨을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양부모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정상성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모든 언어

와 사회문화 그리고 제도 부분이 양부모를 정상성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 등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 홀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공동 돌봄 공간, 교육 서비스 확대,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진로지원 서비스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이혜정, 2019).

셋째, 가족을 떠나서 혼자 지내게 된 참여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대인기피증과 이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 빈약한 경제력으로 고통스러웠으며 자녀와의 이별은 죄책감, 그리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면서 외롭고 낮은 타지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에게 공감받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송옥(2012)의 연구에서 이혼 여성들은 이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인생 실패자라고 평가하고 심리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문현숙, 김득성(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죄의식과 상실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 후 가족 및 친척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와의 갈등, 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김희주, 2018; 김혜정, 2019)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혼 여성들이 이혼 후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이전의 친구 관계가 회복되면 적응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uddleston & Hawkins, 1993).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남녀 똑같이 이혼을 경험하더라도 여성이 더 많은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여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혼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한편,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2004)의 연구를 보면 우리 사회의 여전한 정상가족에 대한 신념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이혼한 남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장은정, 최희정(2019)은 이혼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가족 및 사회관계에서 다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혼 및 재혼과 관련된 성별차이를 집중적으로 탐색해본다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방법과 사회 인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혼은 곧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체계가 취약한 비정규직, 임시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기능이 필요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취업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혼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지원과 이혼가족들의 자조 모임 결성을 도와 대인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 등도 필요하다.

넷째,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염려가 많았지만 혼자 남겨진다는 불안과 자녀의 지지로 재혼을 하게 되었다. 이는 박영숙(2002), 윤명희(2000), 하수정(2017)의 연구에서 홀로 된 노인이 재혼을 원하는 이유는 외롭고 삶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라는 연구와 일치하며, 자녀

의 재혼 지지는 결혼 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관련된다(김승익, 2014). 임춘희(1997)는 재혼 부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에 적극적인 지지와 행동으로도 표현할 때 재혼에 대한 만족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재혼은 초혼보다 복잡한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혼에서의 낭만적 사랑으로 시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혼당사자의 연령과 자녀 관계, 사회경제적관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혼인 인식과 폭넓은 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가중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 배우자, 새 배우자와의 갈등을 감내해야 했고, 재혼가정에서 차별로 고통받는 친자녀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재혼이 후회스럽기도 하였으며, 계자녀와의 갈등과 양육의 부담감, 계부모의 역할갈등, 시댁 및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는 김혜선(2015)의 재혼 여성이 계자녀를 양육하면서 긴장감, 무력감, 분노감, 수치심, 좌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였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이상 증상, 질병 등의 괴로움을 호소하였다는 것과 일치된다. 그리고 김효순, 엄명용(2007)의 연구에서 재혼 부부의 역할갈등은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호한 계부모의 역할은 계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움을 나타냈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권혁출(2014)의 연구에서 재혼 여성들은 배우자 친인척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데리고 온 자녀에 대한 차별로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조부모와 관계가 오래된 자녀와의 연대는 특히 계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김연옥, 2007; 양진희, 2012)는 연구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전 배우자와의 관

계는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책임 등으로 인한 관계는 완전히 종결되지 못함으로써 재혼 부부의 유대를 방해하고 재혼가족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Stewart, 2005).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계부모-계자녀 관계는 역할갈등과 역할긴장을 불러온다. 이는 재혼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가족구성원 간 결속력과 응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계부모-계자녀에게 특화된 양육 관련 교육과 적응프로그램 개발, 양육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상담, 그리고 재혼가족이 언제든지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재혼가족들의 접근성을 키우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과 적응을 위하여 새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고, 헤어진 친자녀를 만나 챙겨주고 재혼가정에서 상처 입은 친자녀를 품게 되었다. 계자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가가는 노력과 재혼가족을 이어주는 우리 자녀를 위해 안정된 가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시댁과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재혼가족이 새로운 가정을 유지하고 적응하는데는 신앙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김다애, 조은숙(2019)의 재혼 부부가 안정적으로 가정에 안착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부부관계이며, 재혼 부부의 의사소통 만족감이 높을수록 역할긴장을 경험하더라도 우울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김인복, 김용수(2020)의 연구에서 재혼 부부의 부부친밀감형성 노력은 재혼가정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와도 연결된다. 최영아(2002)의 연구에서 재혼 부부의 종교 일

치는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종교를 통해 신뢰를 되찾게 되어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 것에도 연관된다. 김혜선(2015)의 연구에서 재혼 여성들은 계자녀 양육 역할 과정에서 재혼모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계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공감적 노력을 도모하였고 계자녀에게 온정적 양육 태도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재혼가족들은 재혼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며 외부에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혼가족들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외부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기보다는 전문 상담자가 재혼가정에 방문 상담하는 홈케어플래너(가정방문상담사)지원, 비대면상담(전화상담, 화상상담, 문자상담) 등을 통해 재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일곱 번째, 참여자들은 새 배우자로 인해 내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친자녀에게 이해받고 계자녀들과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편안함을 느꼈으며, 우리 자녀로 인해 가족이 이어지는 안정감을 느꼈다.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힘이 되었으며, 재혼 후 찾은 여유는 주변에 재혼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김혜선(2015)의 연구에서 재혼 여성이 계자녀의 성장을 위한 주도적 돌봄에서 계자녀가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을 얻었고 계자녀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 기뻐하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김다애, 조은숙(2019)은 계부모가 재혼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현실에 부딪히며 점차 역할긴장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혼가족

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권예원(2016)의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노력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갈등을 극복하도록 해주며, 재혼가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는 것에도 일치한다. 그리고 Ganong와 Coleman(1994)의 재혼 후 출산 자녀는 재혼가족의 모든 구성원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도 일치한다. 한편 재혼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참여자의 사례는 김혜선(2015)의 재혼가족은 사회의 부정적 편견에 의한 수치심으로 재혼가족임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재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심리적,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재혼가족은 재혼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주변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더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혼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다는 인식과 부당한 호기심을 지양하고 주변의 이웃과 똑같은 가족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재혼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고 재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 전혼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전 배우자와 이어주는 근거가 되고, 이는 새 배우자와의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새 배우자의 과거 행동으로 인한 상처는 쉬 아물지 않고 고통을 주며,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가지는 미안함과 죄책감은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계부모-계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과 시댁에 대한 역할긴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은 지키고

싶은 가족이 되었다. 이는 정기영(2010)의 연구에서 친자녀와 헤어진 재혼 여성은 계자녀의 친엄마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계자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쏟으로써 친자녀가 보호받기를 바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임춘희(1997)는 새 배우자에 대한 만족은 재혼 남성들의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게 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배려, 자신의 성격 변화, 배우자에 대한 감사 표시, 배우자에 대한 인정으로 결혼생활을 영속하고자 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현숙(2003)은 재혼가족은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욕구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제고를 통해 재혼가족이 제대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재혼가족들은 새로운 가족 속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건강한 자기 모습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계자녀에게 적절한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재혼가족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여 재혼가족임을 드러내는 외부적 활동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 적응을 위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심리상담이나 법률적 지원은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혁출(2014)의 연구에서 재혼 여성들이 재혼에 대한 허황된 기대감을 버리고 새자녀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재혼가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재혼 가정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김미옥, 천성문(2014)의 재혼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이 재혼 부모들에게 부

모 역할 수행에 자심감을 갖게 하고 자녀와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형민(2014)의 연구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지지를 받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재혼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박은주(2017)의 연구를 보면 재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재혼한 아내가 남편보다 참여 희망률이 높았으며, 재혼가족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 노출이라고 한 것과는 연결된다. 강운중, 박미하(2019)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정을 위한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켰다는 것과는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는 재혼가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재혼가족이 바라는 조용한 지원(심리상담과 법률적 지원 등)이 재혼가족들을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재혼 남성과 재혼 여성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혼 남성들은 재혼 후 사회적 관계에서 재혼 여성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 동료들 모임이나 친척들 및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에 새 배우자와의 동반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도 관련된다. 즉, 재혼 남성들은 재혼 후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 성적인 욕구 충족, 가족의 대소사 등의 일에 지원을 받으면서 외부활동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혼 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의 안위를 피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 속에 결혼생활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재혼 남성들은 가족 재구성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든

후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회적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가족 재구성 시작 전 단계부터 시작 단계, 적응 단계, 안정기 단계, 미해결과제, 재혼 후 변화된 모습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탐색함으로써 재혼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둘째, 재혼가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재혼 여성에 한정된 연구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혼 여성 7명과 재혼 남성 5명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재혼가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은 재혼 사유(이혼 또는 사별)와 재혼 유형, 재혼가족형태, 재혼 기간, 친자녀나 배우자 자녀와의 동거유무, 친자녀 및 계자녀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재혼가족 전체로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재혼가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재혼가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재혼을 경험한 성인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족의 재구성 과정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가족 재구성을 경험한 자녀의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재혼가족들의 삶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험과 현상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혼가족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서 상담자는 재혼의 사유와 재혼 유형, 재혼 형태에 따라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역동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에 따른 상담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통해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친자녀에 대한 미안함, 계자녀에 대한 불편함, 새 배우자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 등을 살피고 부부관계 향상을 돕는 정서 중심 상담, 의사소통기술, 역할모델링 교육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운중, 박미하 (2019).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효과.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지, 6(3), 35-46.
- 고은영, 서영석 (2012). 재혼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79-419.
- 권예원 (2016).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갈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혁출 (2014). 재혼모가 경험하는 재혼가족 갈등 극복에 관한 현상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다애, 조은숙 (2019). 재혼가족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7(4), 599-620.
- 김미옥, 천성문 (2014). 재혼가족의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03-928.
- 김복희 (2007). 농촌노인과 재혼한 여성의 삶에 관한 강점 관점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익 (2014). 노년기 재혼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옥 (2002). 재혼가정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19-342.
- 김연옥 (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171-195.
- 김은정 (2018). 여성의 이혼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복, 김용수 (2020).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연구: 재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37-59.
- 김지혜, 김희주 (2018). 여성 한부모의 자립 경험과 강점 자원에 대한 연구: 사별, 이혼, 미혼모 가족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159-193.
- 김진원 (2019). 이혼 전·후 가구소득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발달단계에 대한 종단연구: 이혼자와 결혼유지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민 (2014). 재혼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 (2015). 재혼모의 계자녀 양육 좌절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 (2019). 부산지역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정책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 309-343.
- 김효순, 엄명용 (200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75-102.
- 김효순, 하춘광 (2010).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지*, 17(4), 67-101.
- 문현숙, 김득성 (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 38(3), 99-120.
- 박영숙 (2002). 노인의 결혼 상태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주 (2017).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8(1), 509-528.
- 박태영, 김태한 (2010). 재혼가족의 가족 갈등 사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5-28.
- 박현정 (2011). 이혼·별거 전후 소득과 생활만족도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복수 (2014). 재혼에 관한 연구 경향분석: 2000년~2013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4(1), 83-101.
- 변복수, 박승민 (2015). 재혼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721-748.
- 성정현 (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 욱 (2012).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2003).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49-68.
- 양진희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재혼가정 어머니의 재혼가족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5-34.
- 윤명희 (2000). 홀로된 노인의 생활실태가 재혼 욕구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신, 김유순 (2005).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미치는 요인: 남녀 모델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91.
- 이윤경 (2017). 과학적 지식, 인식론, 질적 연구방법. *한국사회학회*, 12, 356-368.
- 이현주 (2005). 노인부부 가구에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정 (2019). 가족 요인과 사회적 차별이 이혼한 한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145-151.
- 임춘희 (1997). 재혼한 남자 노인의 재혼가족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 119-138.
- 장은경, 최희정 (2019). 중년에서 이혼과 신체건강의 관련성: 성별에 따른 가족/사회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1), 23-43.
- 장현정 (2010). 여성의 재혼 경험을 통해 본 결혼의미의 구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영 (2010). 재혼여성들의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3). 재혼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사회과학연구*, 17, 1-18.
- 주혜주 (2016). 여성의 이혼 결정과정. *대한질적연구학회지*, 1, 32-41.
- 차연실 (2004).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도

-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아 (2002). 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 (2020). 한부모 및 재혼가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포럼, 64(0), 7-14.
- 통계청 (2019). 2018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 자료.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 자료.
- 하수정 (2017). 재혼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성인 남녀의 이혼 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 홍승아, 최인희, 최진희, 유은경 (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Amato, P. R., & Previti, D. (2003). People's reasons for divorcing: Gender, social class, the life course, an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5), 602-626.
- Gallagher, M. (2002). *Marriage and public policy: What can government do? Policy Brief*. New York: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 Ganong, L. H.,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 Sage Publications, Inc.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 235-260.
- Gosselin, J. (2010).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1(2), 108-123.
- Huddleston, R. J., & Hawkings, L. (1993). The reaction of friends and family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9(1/2), 195-208.
- Ihinger-Tallman, M., & Pasley, K. (1987).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The Guilford Press.
- Rogers, K. B., &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1024-1038.
- Santrock, J. W., & Sitterle, K. A. (1987).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mother families*. In Pasley, K. & Ihinger-Tallman, M. (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273-299. The Guilford Press.
- Stewart, S. D. (2005). Boundary ambiguity in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6(7), 1001-1029.
- Thomson, E., McLanahan, S. S., & Curtin, R. B. (1992). Family structure, gender, and parental socializ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68-378.

원고접수일 : 2021. 05.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6. 24

게재결정일 : 2021. 07. 02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Family Dissolution and Reconstruction in Remarried Families

Kyung-Lae Park

Jae Yeon Park

¹⁾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Daegu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Daeg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family dissolution and reconstruction in remarried famil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adults in reconstructed families.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nine themes identified were: wounds of ex-marriage; difficulties of single parenting, and the help of parents and siblings; time having endured alone and time surrounded by people; fear and worries of beginning and children's support; problems in the process of forming a new family; efforts to adapt to a new family; sense of security in the new family; tasks left behind and family wanting to keep; and, changing myself through family reconstruction and wishes. This study provides integrated data on remarried families by exploring the flow through the pre-start, beginning, adaptation, and stabilization stages, including changes after remarriage and unresolved challenges.

Key words : remarried family, family dissolution, family reconstruction, qualitative study